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바깥 세상에 대한 개념은

마음 안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니

딱딱한 얼음이 물로 녹도록 놓아두거라.

겨울이 오면 호수와 강은 단단하게 얼게 됩니다. 사람들, 짐승들 그리고 마차 등이 그 얼음 표면 위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봄이 다가오면 지면이 따뜻해지고 얼었던 강물은 녹아서 흐르게 됩니다. 그 딱딱했던 얼음엔 무엇이 남아 있나요? 물은 부드러운 액체이고, 얼음은 견고하고 모가 납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이 같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얼음은 물이 언 것이고 물은 얼음이 녹은 것일 뿐입니다.

바깥세상에 대한 인식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집착하고 좋고 싫음에 의해 고통 받게 되고, '세속 팔공'에 사로잡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당신의 얼어붙은 개념을 녹여 의식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얼음과 같은 개념들을 녹여보세요.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계파 간 이해관계로 공염불에 그친 '추천'

## 총무원장 후보 15인 추천위 무산... 본격 선거전 시작

추천과 경선의 갈림길에 선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결국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각 진영의 해석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前 호계원장 법승 스님, 수경 스님이 8월 31일 대전 유성에서 만나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제도권에서 6인, 선교를 분야와 비구니스님을 포함한 9인 등 총 15명으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구성 시한은 9월 3일까지였다.

하지만 합의 사항을 놓고 불교광장, 舊 무량·무차·백상도량(이하 3자연대), 수좌회와 해석은 엇갈렸다.

가장 먼저 3자연대의 수장 격인 법승 스님은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후

보 추천위원회 구성 합의에 대해 "3자연대는 수용을 전제로 결론을 유보한다. 추천위 구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원장 스님의 불출마 선언과 불교광장에서 대리 후보를 추대하지 않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광장 역시 2일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

### 합의 내용 놓고 각 진영별

#### 해석 차... 정치적 수사만

#### 불교광장·3자연대 대결 압축

#### 정책보다 계파 세 싸움 우려

한 전체 회의에서 보선 스님이 먼저 출마의사를 밝힌 만큼 먼저 철회해야 총무원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수용한다고 맞붙을 났다.

결국 3자연대는 9월 3일 오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종현종법에 의거해 후보 보선스님을 중심으로 여법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진영 간의 평풍 게임이 이어지고 구성 시한을 넘기자 자승 스님은 9월 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8월 30일 5자회담에서 우리는 종단과 불교를 위해 중도들의 뜻을 모아 신망 있는 분으로 총무원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종단 안팎의 덕망 있는 분으로 제도권에서 6인, 선교를 분야와 비구니를 포함 9인 등 모두 15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애종의 마음으로 첫 마음을 낸 그날의 결의에 대한 뜻은 변함없다. 4일 일과시간까지 뜻을 기다리겠다"고 보선 스님 측의 추천위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천위 구성은 마지막 시한마저 넘기고 구성이 결렬됐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전국 선원수좌회다. 수좌회 대책위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31일 수좌회는 교육자적으로 자승 스님의 재임 포기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포함한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애초 합

의를 지킬 마음이 전무했음에도 기득권들은 '서로 상대의 선 양보와 자신들의 후결정'을 밀고 당기는 술수로 대중을 호도하는 추대를 보였다"고 양 진영을 모두 비판했다. 또한 9월 6일부터 자승 스님의 연인 포기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용맹 정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결국 추천위 구성은 '선 양보, 후 결정'이라는 전제조건을 양 진영이 내걸고 신경전만 벌이다가 불발로 끝났다. 결렬 과정에서 서로의 진영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수사들은 그간의 선거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물에 선거 이슈가 맞춰져 있다보니 종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추천위가 무산됨에 따라 제34대 총무원장은 10월 10일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선거는 3자연대의 추대로 출마한 보선 스님과 불교광장 후보 간 대결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양 진영들 역시 선거 일정에 맞춰 조직 구성과 종책 제안 등의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 과제는?

## 불교광장, 5·6일 종책 마련 위한 좌담회 개최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바라는 종책 과제를 논의하는 좌담회가 마련됐다.

불교광장은 9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한국불교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종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1차 좌담회에서는 역대 집행부의 성과와 차기 집행부의 과제를 짚었으며 2차 좌담회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1차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19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종단은 시스템적으로 안정되고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향성을 잃고 안정적 종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 싸움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3대 집행부의 사회화 사업들은 잃어버린 방

향을 제시해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부영 불교신문 편집장은 "이번 조계종 총무원 33대 집행부의 최대 성과는 '불교의 사회화'라며 "용산 철거민 참사를 시작으로 여러 민생현장에서 불교가 나서서 사안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되짚었다.

정용기 불시넷 운영위원장은 "33대 집행부가 초기에 '화쟁'을 기조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시대적 과제를 잘 짚어낸 것이다. 이후 쌍용차, 4대강, 지리산 케이블카 등의 사회 현안을 중도적 입장에서 중재하려 했다"며 "불교의 사회화'의 과제를 이어가는 것이 차기 총무원장 종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2차 좌담회에서는 핵심 발전 의제 중 △

수행 종풍 진작 △종단 자성과 쇄신 방향 모색 △교구책임제 대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 결사기구가 독립적 종법 기구로 설치되어야 필요 있다고 주장이 나왔으며 재정 투명화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종령이 아니라 종법 수준에서, 권위를 위임 받은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권, 자료 제출권, 종회 의견제출 및 권고권 등을 줌으로써 대중적 권위를 갖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를 못한 과제에 대해 불교광장은 3차 좌담회를 열어 제시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아진 종책 과제들은 향후 불교광장이 추천하는 총무원장 후보에게 전달된다. 신종일 기자

##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도산스님 취임법회

9월 26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서 봉행

태고종은 9월 26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 25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도산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도산 스님은 지난 7월 18일 치러진 선거에서 전체 146표 가운데 68표(46.5%)를 얻어 총무원장

에 당선됐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도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기간 내 공약했던 8대 운영기조 및 18대 핵심 실천 과제를 골자로 향후 주요 종책을 밝힐 예정이다.

태고종측은 "이번 행사에는 태고종 중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승정·원로스님, 전국시도교구 총무원장, 중앙총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 강창희 국회의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갑윤 국회 정갑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행사 화환 대신 화환대금을 접수 받아 순천지역 불우이웃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

3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에 원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문중화합이 최우선이다. 잘 추슬러 교구본사의 격에 맞는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대우 스님 네 번째 출마

내장산 벽련선원 대우 스님(사진)이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다.

대우 스님은 9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스님의 출마는 29, 32, 33대 선거에 이어 네 번째이다.



신종일 기자

# 2013년 10월 BATI 불교문화창작교육원 2기 모집

애기꾼과 산하 교육기관인 BATI불교문화창작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문학작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광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모집분야 : 문학작가반 : 3학기(18개월)과정 - 소설, 동화, 수필  
스토리텔링반 : 2학기(12개월)과정 - 불교문화재스토리텔링, 불교경전스토리텔링
- ▶ 개 강 : 2013년 10월중
- ▶ 접수기간 : 2013년 8월 30일~2013년 9월 30일까지
- ▶ 접수방법 : http://cafe.naver.com/batihome 접수계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첨부 batistaff@naver.com
- ▶ 접수안내 : 자세한 수강 내용은 http://cafe.naver.com/batihome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70-8880-8202, 010-5656-8202

### 문학작가반 ▶

2012년 6월에 개원한 창작교육원은 1년 동안 소설가 2명 동화작가 1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여명의 작가지망생이 창작수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특전 : ① 문단에 등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등단 후에도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후원 합니다.  
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심의를 거쳐 스토리텔링 작가 자격증을 주며 <애기꾼>에서 추진하는 스토리텔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스토리텔링반 ▶

문화재청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애기꾼의 전속 불교문화재스토리텔러와 불교경전스토리텔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특전 : 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불교문화재 및 불교경전 스토리텔러(해설사) 자격증을 줍니다.  
② 사할 및 공공기관에 해설사(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